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9. 20.(금) 조간 배포 2024. 9. 19.(목) 09:00

"핀테크와 인공지능, 금융의 미래를 열다"

# 제6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개최 결과

- **총 12,500명 이상**(전년 대비 약 17% 증가)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세미나·부대행사·전시관에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 속** 성황리에 **마무리**
- 인공지능의 금융서비스 경쟁력 제고,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 기회창출, 글로벌 교류 확대 등 **다양한 성과와 수요를 반영**하여 **핀테크 지원 지속**

## 1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성황리에 마무리

지난 8월 27일부터 3일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개최된 **제6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가 **총 12,500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세미나·부대행사·전시관에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마무리되었다. 특히, 관람객(936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중 **94.44%**가 향후 박람회에 **재방문 의사**를 밝히며 **행사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드러내었다.

※ **현장 방문객 수** : ('23) 약 10,741명 → ('24) 약 **12,558명** (전년 대비 약 17% 증가)
**설문조사 결과**(관람객 936명 대상) : **세미나·부대행사 만족도 92.42%, 재방문 의향 94.44%**

금번 박람회는 '**핀테크와 인공지능, 금융의 미래를 열다**(Beyond Boundaries: Fintech and AI Redefining Finance)'를 주제로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를 **공유**하고 **교류**를 촉진하였다. 한편, 핀테크 기업의 **사업모델 홍보 및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 조성되어 **총 109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고, AI 등 **11개의 전문분야별 세미나**가 진행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다.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이 **환영사**를 전한 개막행사에는 **리투아니아 긴타레 스카이스테**(Gintarė Skaistė) **재무장관**, IBM **파올로 시로니**(Paolo Sironi) **글로벌 리서치 리더** 등 해외 인사도 참석하여 **글로벌 AI 동향과 각국의 핀테크 정책**에 관해 발표하고 **축하를 전달**하였다.

이후 **김 위원장**은 전시관 등을 방문하여 **AI와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금융의 변화**와 **최신 핀테크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국내·외 참가기업**들을 **격려**하였다.

* AI 기반 자산관리/분석 서비스, AI 기반 비접촉 지문인식 및 무자각 얼굴인식 인증 기술, 부동산 VR·AR 서비스, 얼굴인증을 통한 암표 방지 기술 등

이번 박람회는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지자체 등 **총 85개 전시부스**('23년 82개)로 구성되었다. 특히, **'K-Fintech 30' 선정식과 특별관을 별도로 운영***하여 **K-핀테크를 대표하는 기업의 홍보 및 투자 유치**를 지원하였다.

* 핀투비, 에임스, 주식회사 모인, 씨앤테크, ㈜아이쿠카, 코넥시오에이치㈜, 페이히어, ㈜디셈버앤컴퍼니, 주식회사 루센트블록, 스몰티켓 등(한패스, 에이젠글로벌은 독립부스 형태로 핀테크관(아트홀 2관) 전시)

아울러, **주제별 세미나**에서는 **핀테크 트렌드 및 생성형 AI의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생성형 AI와 거대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의 **AI 도입 사례**를 발표하여 **미래의 금융생태계**를 조망하였다. 또한, 금융보안원은 **AI로 인한 새로운 위험 유형**을 살펴보고, **향후의 AI 보안 대책**을 선보였다. 이밖에도 다양한 전문가가 **AI 활용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했다.

## 2 핀테크 기업 투자유치 기회 창출

작년에 이어, 이번 행사에서도 **유망하고 잠재력 있는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다.

KDB산업은행은「KDB NextRound 핀테크 스페셜라운드」를 개최하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성장금융, KB인베스트먼트, 우리투자파트너스 등 **국내 유수 모험자본**(VC) **및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 6개社***가 **IR을 실시**하여 투자유치에 나섰다.

* 구하다, 그랜터, 리드넘버, 씨너지, 에임스, 인포플러스 등 6개社

KB인베스트먼트, 디티앤인베스트먼트, 아이엠투자파트너스 등 VC들이 이번 핀테크 스페셜라운드에서 **IR을 실시한 6개社에 대해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투자유치 결과가 기대된다.

한편, '핀테크혁신펀드 Reverse IR' 에서는 **총 1,5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운용 중인 위탁운용사*가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전략, 중점투자대상**을 **소개**하였다. 특히, 기업의 **성장단계별 투자유치 전략**을 공유하여 초기단계-사업화단계-해외진출단계에 따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마젤란기술투자, 키움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싱가포르), SK증권-나이스투자파트너스(공동운용)

'핀테크 스타트업 1:1 투자밋업' 에서는 총 **3,800억원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운용**하는 20여 명의 **핀테크 전문투자자***가 **투자유치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총 **90건의 1:1 상담기회를 제공**하여 핀테크기업과 투자자 간의 간극을 좁혔다. 핀테크 기업은 **사업방향부터 투자유치까지** 다양한 궁금증을 **전문투자자에게 상담**할 수 있었다.

* 데일리파트너스, 디티앤인베스트먼트, 마젤란기술투자, 미래에셋벤처투자, 인포뱅크, 서울대기술지주, KB인베스트먼트, 케이액셀러레이터, 코로프라넥스트코리아, 플럭스벤처스, 키움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싱가포르), SK증권, 나이스투자파트너스 등

## 3 기타 주요 성과

올해 새롭게 선보인 **모바일 비즈니스 미팅 플랫폼***은 이용자 간 **실시간 소통**을 통해 회의 일정 및 주제를 정하는 것에 일조하였다. 이를 통해 **자유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되는 **네트워킹 라운지**의 **활용도****가 **2배 이상** 높아졌다.

* 67개 핀테크 기업, 21개 투자기업 및 유관기관이 활용

** 3일간 총 58개社(작년 23개社)가 자유 비즈니스 미팅에 활용

핀테크지원센터는 **핀테크 서포트존**과 **네트워킹 라운지**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및 **핀테크 지원사업 소개**를 비롯하여, **❶핀테크 현직자 멘토링***(106건) **❷일자리·취업 상담**(131건), **❸핀테크 전문가 컨설팅**(42건) 등 현장 상담을 진행하여 **핀테크 기업 및 구직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제공했다.

* 멘토기업: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이나인페이, 크레파스솔루션 등

한편, 제7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이 개최되어 총 **94개 팀이 참가**하였다. 공모전은 본선에 진출한 4개 팀의 치열한 경쟁 끝에 「**바이엇 주식회사**(대표: 김동규)」가 **대상(금융위원장상)**을 차지하였으며, 우수상 3개, 장려상 5개 등 **총 9개 팀**이 **최종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 제7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팀 >**

| 상명 | 기업명(팀명) | 대표자 | 아이디어 내용 | 비고(상) |
|---|---|---|---|---|
| 대상 | 바이엇<br>주식회사 | 김동규 | AI 기반 크리에이터 가치평가 활용 중개<br>플랫폼 : 매출, 투자, 여신 등 | 금융위원장상 |
| 우수상 | ConnectYard | 우창범 | 초기 계좌개설이 제한된 외국인 근로자를<br>위한 디지털 급여카드 및 대안금융 서비스 | 한국신용정보원장상 |
| | 토모로우 | 조용우 | 블록체인 기반 외국인 대상 모바일<br>선불카드 및 본인인증 간편결제 솔루션 | 코스콤사장상 |
| | 트레독스 | 최형우 | 무역대금 결제에 사용되는 서류의<br>인공지능 기반 검토 서비스 |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장상 |
| 장려상 | 아이엔 | 강우진 | 임차 in: 임대차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br>포용금융 솔루션 | - |
| | 피블 | 이보람 | LCC: 은행과 수출기업 간 무역금융 중개를<br>위한 신용장 검수 AI모델 | - |
| | NEXA | 이시우 | AI SasS 기반 비상장기업 분석 솔루션 | - |
| | 서병규 | 서병규 | Global M&P: 모바일 교통카드 기반<br>동아시아 관광 핀테크 서비스 | - |
| | 메이크델타 | 김민준 | 트레이더캣: 직장인 투자자를 위한<br>이상거래 감지 AI 솔루션 | - |

이외에도, **도슨트투어***는 금융뮤지컬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행사에 참여한 전 연령층(10~50대)이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을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는 반응**을 얻었다.

* 도슨트 투어 참여 인원: 여수정보과학고, 흥덕고, 금융결제원 해외협력센터, 신한은행, 구름 등 약 330여명(23년 260여명)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리아 핀테크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되어 한국 핀테크 생태계 관련 현장(KB Innovation HUB센터, 한화생명 드림플러스, 카카오뱅크 등)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과 **금융인프라**를 **홍보**하고,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교류**를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라오스 기술통신부, 라오스 핀테크 기업의 해외기업 관계자 등(총 20여명)

## 4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관람객들의 높은 만족도 속에서 마무리 된 이번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에서 **제시된 의견과 수요**를 내년도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행사**와 향후 **핀테크 산업 활성화 지원정책 수립에 다각도로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 | | | | | |
|---|---|---|---|---|---|
| 담당 부서 | 금융위원회<br>디지털금융총괄과 | 책임자 | 과 장 | 신상훈 | (02-2100-2530) |
| | | 담당자 | 사무관 | 김정현 | (02-2100-2534) |
| | 한국핀테크지원센터<br>경영기획본부 | 책임자 | 본부장 | 황인덕 | (02-6375-1510) |
| | | 담당자 | 부 장 | 홍석훈 | (02-6375-1508) |
| | | | 주 임 | 주윤하 | (02-6375-151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 임**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프로그램 주요 논의내용**

※ 프로그램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음

## 1 핀테크 주제별 세미나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 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와 인공지능, 금융의 미래를 열다

□ (1부) 글로벌 토크 콘서트

○ **핀테크와 인공지능(AI)의 응용**(사회/좌장 :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 연구실 서병호 실장)

-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통해 운영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있지만, 생성형 AI는 환각(Hallucinations), 지적 재산권 침해, 금융 범죄 악용 등 부작용도 발생시키고 있음
- 한국에서는 물리적 네트워크 분리 정책으로 AI 활용이 제한되어 있으나, 최근 규제 샌드박스 완화 계획이 발표 되어 보안 기술 도입도 중요한 도전 과제가 될 것임

○ **생성형 AI와 MasterCard의 활용**(마스터카드 AI 엔지니어링 Ahmed Menshawy 부사장)

- 생성형 AI는 전 세계적으로 혁신을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데이터 처리와 지능 증강에 혁신적인 도구로 활용되지만, 실제 운영 환경에 배포하는 데는 다양한 기술적 도전과 과제가 존재

○ **핀테크와 인공지능(AI)의 응용**(LG AI연구원 이화영 상무)

- 지난 10년 동안 AI는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최근 5년간 빠르게 발전하였고, 현재는 새로운 트렌드가 지배적
- 생성형 AI는 다양한 기술과 도메인 지식이 결합하여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 **Machine Learning이 정량적 투자(Quantitative Investment)의 미래가 될 수 있는가?** (성균관대 경제학과 한철우 교수)

- Machine Learning 은 데이터와 모델이 널리 사용되면서 경쟁 우위가 감소하고 시장이 더 효율적으로 변해가는 가운데,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음

- Machine Learning은 여전히 프로세스 개선과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적절한 기회를 활용하면 여전히 이점을 얻을 수 있음

○ **일본 금융 서비스에서의 AI 활용 및 위험 관리**(일본금융청 Oki Kenji 과장)

- AI 사용의 장점과 위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본 금융청(JFSA)은 금융 기관들이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모니터링하며, 다양한 관계자들과 협력할 계획

## □ (2부) 핀테크 AI를 품다

○ **금융 시스템 내 AI 도입의 도전과 기회**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Future AI 헤드 센터 하정우 센터장)

- 현재 AI 기술은 금융 시스템 내에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생성 AI의 활용은 여러 가지 보안 및 데이터 보호 문제를 동반할 수 있음. 이에 따라 AI 기술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와 교육이 필요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물리적 분리가 아닌 보안 강화 장치 마련이 중요하며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

○ **금융 분야 AI 활용의 현황과 향후 전망**
(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오순영 공동의장)

- 금융 분야에서 AI는 생산성 향상, 고객 상담 개선, 금융 혁신 서비스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AI 도입에는 편향된 정보 제공과 같은 위험이 따를 수 있으며, 정확한 활용성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

- 지속 가능한 AI를 위해서는 실제 필요에 맞는 영역 발굴과 AI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적용해야 함.

- 생성 AI 기술은 금융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도 신뢰성을 높이고, 대출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AI의 정확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과 시스템의 연계를 고려해야 함

## [BCG] 핀테크 세미나

○ **2024년 글로벌 핀테크 전망**(BCG 박영호 MD파트너)

- 핀테크 기업들의 매출 성장에도 불구, 기업 가치와 펀딩 규모가 저조한 상황 (2021년에서 2023년 사이 핀테크 기업의 매출은 21% 증가 불구, 자본 조달액은 71% 감소했으며 기업가치 또한 80% 감소)
- 글로벌 챌린저 뱅크는 2023년 기록적인 수익을 창출하며 기존 은행의 경쟁자로서 자리매김하였으며, 디지털 기반 비용 구조로 인한 우수한 확장성 및 매출원 다각화가 성장 배경
- 새로운 형태의 금융인 임베디드 금융은 2023년 기준으로 $320B 규모로 성장했으며, 결제·대출·보험 등의 영역에서 활발히 적용 중. Stripe와 같은 선도 기업은 연간 결제 1조 달러 돌파 등의 성과 창출 중
- 커넥티드 커머스는 소비자에게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고객 충성도를 유도하고, 가맹점과 금융 기관 모두에게 이익을 창출하는 모델로 자리잡고 있음
- GenAI는 이미 가시적인 생산성 향상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어 향후 Game Changer로 부상 전망되며, 특히 핀테크 기업들은 Digital-first 비용 구조로 인해 GenAI의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
- 통합 디지털 인프라(DPI) 구축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며, 브라질 사례와 같이 명확한 비전 하 표준화된 프로토콜, 거버넌스 체계 도입, 거래 가격 책정 등 여러 측면에서 통합 DPI 구축 주도 필요

## [금융결제원] AI로 창출하는 디지털금융과 지급결제 혁신

○ **AI를 활용한 휴대폰 결제 리스크 관리 최적화**(KG모빌리언스 IT개발본부 최현수 본부장)

- KG모빌리언스는 AI 기술을 통해 휴대폰 결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미납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한 성과를 발표, AI 기술을 통한 실시간 미납 예측과 결제 성공률을 향상시킴

- 앞으로도 AI 기술의 발전과 데이터 분석 강화를 통해 결제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경험을 극대화할 예정

○ **AI로 진화하는 금융산업, 도약의 기회**(금융결제원 금융데이터융합센터 김옥선 센터장)

- 금융산업에서 AI는 시장 경쟁력 확보(운영효율화·고객편의제고 등) 수단의 하나로 가치사슬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기술로 인식되고 있으나, AI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①잠재리스크 대응(정확성·보안성), ②생태계 조성(인프라·데이터), ③거버넌스 마련(법률·가이드라인) 등 정부, 금융업권, 유관기관 각각의 현안과제 대응 노력이 필요

- 금융결제원은 금융공동망·어음교환 등 지급결제전문기관으로서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권 공동 데이터플랫폼(Datop)을 운영 중이며,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인프라 지원 사업(AI테스트베드 등) 및 AI 기반 금융권 공동 서비스 발굴 등을 진행하여 금융산업 내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AI를 활용한 해외송금 예측**(하나은행 외환사업지원부 김경진 차장)

- 하나은행은 AI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송금 기업을 위해 무역결제의 주된 방식인 해외송금 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AI 해외송금 예측 서비스를 제공. 동 서비스는 외국환 전문성, 국내 최고 수준의 송금 데이터를 이용하여 하나은행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활용한 AI 예측모형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으로, 해외송금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조회/확인할 수 있게 됨

- 하나은행 고객은 "AI 해외송금 소요시간 예측"을 통해 해외송금 전 송금도착 시간 예측 뿐 아니라 처리 지연 송금 비중이 높은 은행으로의 송금 시 지연 사유까지 확인 가능하며, "수취계좌 사전확인"을 통해 수취 계좌의 현재 상태(과거 사고/반환 이력, 해외송금 계좌 사용 이력, 수취 계좌 유무 등)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이메일 해킹이나 무역사기로 부터 예방이 가능함

## [한국성장금융] 핀테크혁신펀드 Reverse IR

○ 핀테크혁신펀드 'Reverse IR' 에서는 총 1,500억원 규모의 핀테크혁신펀드를 운용 중인 위탁운용사*가 핀테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전략, 중점투자대상 소개 특히, 초기단계-사업화단계-해외진출단계에 따른 세분화된 발표를 실시하여 기업이 필요한 성장단계별 투자유치 차별화 전략 공유

* 마젤란기술투자, 키움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싱가포르), SK증권-나이스투자파트너스(공동운용)

## [삼정KPMG] AI 기반의 핀테크 산업 Rebuilding 전략

○ **지난 5년간의 핀테크, ChatGPT를 통해 말하다**(삼정KPMG 윤희상 부장)

- 지난 5년간의 핀테크 동향 보고서를 Chat-GPT로 분석하여 핵심 키워드 도출 및 인포그래픽 리포트 자동 생성

○ **AI 기반의 핀테크 산업 Rebuilding 전략**(삼정KPMG 김준 이사)

- 글로벌 핀테크 생태계 동향, 국내 산업 현황 및 To-Be 방향성,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핀테크 Rebuilding 전략(AI와 공유인프라 중심)

○ **데이터 경제를 활용한 해외 진출 사례 소개**(에이젠글로벌 강정석 대표)

- 비금융산업과 금융회사를 연결하는 AI 기반 뱅킹 플랫폼을 소개하며, 데이터 융합을 통한 해외 진출 방향성을 제시

○ **SaaS 기반 공급망 금융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진출**(핀투비 박상순 대표)

-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공급망 금융 플랫폼을 소개하며, 기업 거래 데이터 축적을 통한 신용리스크 관리 및 해외 진출에서의 Lessons & Learned를 공유

○ **핀테크 리빌딩 : K-Fintech에게 듣다**(토론/좌장: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근주 회장)

- "자체적인 데이터 경제를 구축하고 확대하는 것이 AI 사업 경쟁력의 핵심" 이며 "해외 진출 초기에는 국내 금융 기관과의 시너지를 위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을 강조함(에이젠글로벌 강정석 대표)

- “공급망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업 앵커를 확보하는 것”이며, “현지 은행 및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주요한 성장 동력임”을 강조함 (핀투비 박상순 대표)

- 핀테크혁신펀드를 소개하고, “최근 기업들은 국내 레퍼런스 확보 후 해외에 진출하는 트렌드”이며, “AI 역량의 경우, 차별화된 데이터를 통해 수익화하는 역량이 중요함”을 강조함(한국성장금융 노해성 실장)

## [신용정보원] 금융산업의 특이점(Singularity) : AI가 바꾸는 금융 생태계

○ **교차점 : AI & 금융산업**(한국신용정보원 최유삼 원장)

- 한국신용정보원 최유삼 원장은 ‘교차점 : AI & 금융산업’를 주제로 한 기조 발제를 통해 AI와 금융산업의 상호작용을 통해 창출되는 금융 혁신의 시너지를 제시

○ **신한은행의 AI가 여는 새로운 기회**(신한은행 임은택 본부장)

- 미래는 생성형 AI가 그 중심: 신한은행은 생성형 AI 중심으로 AI 운영 체제를 개편 중

- AI-Driven Finance*의 구현을 위한 신한은행의 AI 은행원, AI를 활용한 업무자동화·내부통제 등 AI 도입·고도화 사례를 공유

* AI-driven finance를 통해 고객 경험 개선이 가능하며, 이는 즉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

○ **금융업의 본질에 다가서는 AI**(크래프트테크놀로지스 허태형 부대표)

- 최근 급부상한 LLM의 적용 사례를 통해 AI와 LLM에 대한 다양한 기대와 시사점에 대해 논의

- 이와 더불어 AI의 적용에 있어 도메인 지식의 중요성과 AI와 사람의 도메인 지식의 결합으로 지수적 성장이 가능함을 제언

○ **AI 기반 금융 혁신 : 투자를 넘어 헷징까지**(한양대학교 송재욱 교수)

- 금융 AI 관련 선도적 연구의 장인 ICAIF(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I in Finance)의 개요 및 동 컨퍼런스에서의 주요 연구 논문 주제 등을 소개
- 'ICAIF' 에서 다루어진 AI 기반의 머신/딥러닝 기반 퇴직연금 관리, 생성형 AI를 활용한 다변량 금융시계열 시뮬레이션 기법 등 다양한 투자·리스크 헤징 전략을 소개

○ **(AI 증강기술) GRAPH RAG 그래프 검색증강 생성**(허그랩 양윤석 대표)

- 금융 분야는 어떤 분야보다도 정확성, 신뢰성, 해상도, 실시간성, 추론 성능 및 차트 등의 시각적 요소까지 현존 최고 LLM 모델의 성능 그 이상을 요구
- 기존 LLM의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는 AI 증강 기술의 적용 사례와 미래 비전을 조망

○ **이어 신용정보원 직원들은 신용정보원의 다양한 금융지원 플랫폼에서 AI가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함**

- 신용정보원에서 현재 운영 중인 AI학습장, 데이터전문기관 및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등 다양한 서비스에서 AI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소개하는 한편,
- TCB평가 가이던스 모델, 혁신성장 기업 추천 시스템, 동의등급 평가 보완 AI 모델 등 향후 선보일 신규 서비스에서 AI가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

## [금융보안원] 보안 AI × Fintech의 미래전략

○ **금융권 인공지능 거버넌스 가이드** (금융보안원 서호진 팀장)

- 국내외 금융권 인공지능 활용현황, 정책동향 및 발생가능한 보안 위협에 대해 살펴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해 금융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거버넌스 모범사례를 설명

○ **AI Safety : 금융권 생성형 AI 도입에 따른 위협과 과제** (금융보안원 이주현 책임)

- AI 안전성(Safety) 관련 국내외 동향을 소개하고, 기업에서 생성형 AI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 안전한 AI 서비스 활용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

## [한국인터넷진흥원] WEB3 시대 기술 트랜드 및 글로벌 진출방안

○ **국내 CBDC 연구 현황 및 향후 계획** (한국은행 김동섭 팀장)

- 전세계 중앙은행의 93%가 CBDC연구개발을 진행 중임 그에 따라 한국 또한 분산원장 기반 온라인 환경에서의 CBDC 모의실험 및 15개 시중은행 등과의 금융기관 연계실험 등을 진행하였음
- 한국은행은 향후 일반 이용자들도 CBDC기반의 예금토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이슈, 실거래테스트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

○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동향(STO, RWA)** (김앤장법률사무소 강성윤 변호사)

- 토큰증권 발행(STO)와 실물기반 토큰(RWA)의 유형 및 국내·외 발행사례 소개, 주요국(미국, 일본, 유럽 등)의 법제도 현황 소개 등

○ **은행권의 블록체인 사업화 방향과 사례**(농협은행 차동민 과장)

- NH농협은행의 CBDC 기술검증,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 구축현황 등 블록체인 관련 주요 추진현황 소개
- 핀테크, 블록체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화 수요 등 NH농협은행의 향후 블록체인 사업 추진방향 소개

## [코스콤] 금융업계 AI서비스 실증사례 및 발전방향

○ **금융업계 AI 현황 및 사례**(이정훈 코스콤 클라우드 서비스팀장)

- 코스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금융업계에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어떻게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및 실질적인 가이드, 그리고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

- ‘금융회사 AI 적용 실증사례(AI를 활용한 B2C 마케팅 및 고객 상담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구축방안 및 사업효과 가이드’를 주제로, 금융회사가 AI를 활용해 B2C 마케팅을 개선하고 고객 상담 서비스를 고도화한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구축 방안과 기대되는 사업 효과 소개

- 금융업계의 국내/해외 및 업무별 AI 도입 현황을 비교 & 분석하고,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른 AI 서비스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현재 코스콤에서 제공하는 AI 서비스(AICC, D-테스트베드, RATB 서비스)와 앞으로 나아가야할 코스콤의 미래 AI 서비스 소개

○ **AI 서비스 발전 방향**(이지훈 코스콤 클라우드 AI 리더)

- ‘국내 금융권에 적합한 금융 생성형 AI 서비스 모델 및 응용서비스 구축 방향’을 주제로, 국내 금융권에 특화된 생성형 AI 아키텍처의 구축 방안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서비스에 대해 설명

- 다양한 항목의 LLM 모델 간 비교 결과(생성형 AI LLM 모델 성능 및 특징, 토크나이저, 토큰 사용량에 따른 요금 등), LLM 모델 선택시 ‘성능/보안/비용’ 3가지 요소를 고루 만족해야함

- 효과적인 LLM 활용을 위해 ‘LLM Router’, ‘RAG’, ‘Advanced RAG (Self-Reflective RAG, Corrective RAG)’ 등 다양한 생성형 AI 활용 관련 개념을 소개

- AI 기반 기술의 최적화를 통해 비용 효율적이며, 데이터 외부 유출의 위험성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는 AI 아키텍처 제시를 통해 앞으로 AI 기술 활용을 위한 ‘To-Be 금융 AI 서비스 모델’ 제시

## [한국금융연구원] 핀테크의 새로운 영역 : ESG

○ **ESG 적용에 따른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과거 지급결제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핀테크의 활동 영역이 ESG 관련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E” 분야의 녹색금융, 탄소배출권, “S” 분야의 포용금융, 사회적 금융, “G” 분야의 레그테크, 섭테크 등이 있고 최근에는 ‘Green Fintech’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모델이 국내외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음

- ESG 분야의 핀테크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핀테크혁신기금 등을 통해 ESG 핀테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Scaling up ESG - The Enabling Role of Fintech
(Benjamin Soh 싱가포르 STACS 이사)

- 싱가포르에서는 감독당국(MAS) 주도로 각종 탄소배출 데이터의 측정, 보고, 공시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ESG registry'가 운영되고 있으며, STACS 외에도 수많은 핀테크들이 'Green Fintech' 분야에서 인프라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 특히 싱가포르를 포함한 ASEAN 국가들의 경우 표준화된 데이터 측정·공시·활용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핀테크의 역할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으로 기대함

○ **ESG와 관련한 핀테크의 비즈니스 모델**(토론/좌장: 정유신 서강대 교수)

- 국내에서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등 다양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토큰형 녹색채권 발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기반 마련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아울러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통한 금융포용 확대 등 "S" 영역에서의 핀테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김정일 금융감독원 팀장)

-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 프로젝트에 투자·자문을 제공하고 일반인들이 ESG 투자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 육성이 필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국내에도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디지털 기반 그린뱅크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됨(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

## [보험연구원] 인슈어테크 기업의 생성형 AI 활용과 전망

○ **생성형AI 시대 금융사(보험사) 대응 전략**(마인즈앤컴퍼니 고석태 대표)

- '생성형 AI시대 금융사(보험사)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생성형 AI의 도입과 관련하여 보험사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따른 기술적 및 조직적 준비 사항을 제시함

○ **AI로 혁신과 변화, 그리고 우리의 자세**(업스테이지 최홍준 부사장)

- 'AI로 혁신과 변화, 그리고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거대한 기술의 변화 속에서 기업들이 생성형 AI에 주목하게 된 이유와 사업 개발 현황을 분석하고, 기업들이 어떤 모델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어떤 혁신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함

○ **생성형 AI 활용사례와 역량강화 방안**(토론/좌장: 포항공과대학교 정광민 교수)

- 생성형 AI 이전에도 보험회사는 AI를 통해 가치사슬 내의 효율을 증진시켜 왔으나, 그 효과가 고객에게 체감될 정도로 혜택을 주었는지와 실제 ROI 이익으로 현실화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사내 AI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역량을 가진 학계와 산업 내 전문인력과 협력하는 등 체계적인 임직원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함(보험연구원 손재희 연구위원/실장)

- 생성형 AI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나, 실제로 모든 업무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인력의 시간을 확보해주는 조력자의 역할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회사 차원에서 양질의 커리큘럼을 통해 임직원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삼성생명 양경용 센터장)

- 생성형 AI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도입하여 보험의 가치사슬 내 변화 및 ROI 확보에 대한 답변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나 향후 생성형 AI를 통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CTO 또는 내부적으로 역량이 있는 의사결정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추진하는 보험회사의 의지가 필요함(캐롯 손해보험 이진호 CTO)

## 2 기타 프로그램 주요내용

### [금융감독원] 테크파인더 쇼케이스

○ **정부의 AI 정책 추진 방향 세미나**(과기정통부 이은규 팀장)

- AI 혁신과 안전한 활용을 위해 금년 5월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결과 및 주요 논의내용을 금융권에 공유
- AI 핵심기술 확보 및 혁신 인프라 확충, 글로벌 규범 정립 및 AI 안전성 보장 등 AI G3 강국으로의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AI 정책 추진방향 소개

○ **테크파인더 쇼케이스**(어니스트 AI, 뉴지스탁, AI 스페라, 두나무, 핀다)

- AI 관련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을 선발하여 혁신적인 AI 기술을 금융권에 소개하고 금융권과 협업을 지원

### [KDB산업은행] KDB NextRound 핀테크 스페셜

○ 한국성장금융, KB인베스트먼트, 우리투자파트너스 등 국내 유수 VC 및 유관기관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 6개사가 IR 실시 KB인베스트먼트, 디티앤인베스트먼트, 아이엠투자파트너스 등 다수 VC들이 이번 핀테크 스페셜라운드에서 IR을 실시한 6개사에 대해 투자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투자유치 결과 기대

### [한국성장금융] 핀테크 스타트업 1:1 투자밋업

○ '핀테크 스타트업 1:1 투자밋업'에서는 3,800억원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운용하는 20여 명의 핀테크 전문투자자가 투자유치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총 90건의 1:1 상담기회를 제공, 핀테크기업은 사업방향부터 투자유치까지 다양한 궁금증을 전문투자자에게 상담

* 데일리파트너스, 디티앤인베스트먼트, 마젤란기술투자, 미래에셋벤처투자, 서울대기술지주, 인포뱅크, KB인베스트먼트, 케이액셀러레이터, 코로프라넥스트코리아, 키움인베스트먼트, 플럭스벤처스, 한국투자파트너스(싱가포르), SK증권, 나이스투자파트너스 등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인공지능으로 핀테크를 BODA

○ **핀테크의 진화와 AI의 역할: 금융 역사와 현대적 도전 과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황인덕 본부장)

- 핀테크 진화에 있어서 금융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특히 초창기 금융 거래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며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구매가 일반화되면서 은행의 주도권이 약화되었음

- 금융위원회는 AI 금융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AI 활용 시 편향성을 방지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인간이 해야 한다고 강조

○ **화폐 가치, 금융 역사, 그리고 핀테크의 미래**(명지대 자연창업교육센터 박정호 교수)

- 핀테크는 금융 혜택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며, 전통 금융 산업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음

- 기술 발전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며, 인공지능의 발전을 억제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업의 미래를 개척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임

○ **금융 발전과 AI의 역할**(성균관대 자연과학대 물리학과 김범준 교수)

- 핀테크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미래를 예측하고, AI는 주식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며 은행 업무와 자금 관리에 활용되고 있고 대량의 데이터에서 통계적 규칙성을 찾아내지만, 개별적 데이터나 소외된 사람들은 무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 AI의 발전에 따라 인간의 통제와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며, AI의 활용에는 합의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핀테크와 AI는 금융 생활에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